

유아의 분노관리를 위한 분노대상과 원인 및 표현방식에 관한 연구

Analysis of Targets, Causes and Expression Styles of Anger for Anger Management of Young Children

Jaeun Shin*, Junseong Park**

Department of Child, Dongduk Women's University

Department of Psychological Rehabilitation, Nazarene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targets, causes, and expression of anger of young children for their anger management. A total 128 participants completed a survey developed by the present author. Targets, causes, and expression styles of anger of young children were investigated with open-ended questionnaires and interviews with 64 children and their mothers. As a result, it has been found that the targets of anger of young children, to whom the anger is caused and expressed, are five categories; siblings, peers, parents, themselves, and environments. The causes of anger of young children can be categorized into five dimensions; psychological, bodily, social, physical and verbal dimension. Anger-expression styles can be divided into three dimensions; anger-out, anger-in, and anger-control efforts. This results were discussed in anger of young children.

Key words: anger management of young children, targets of anger, causes of anger, expression styles of anger

국문초록

본 연구는 유아의 분노관리를 위한 분노대상과 원인 및 분노표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 128명의 참가자들은 연구자들이 개발한 질문지를 통해 면접에 참가하였다. 이들 128명은 유아와 그의 어머니 각각 64명으로, 이들에게 유아의 분노대상과 원인 및 분노표현 방식에 대해서 반구조화면접지의 질문과 면접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유아의 분노대상에 대해서 다섯 가지 차원을 검증하였다. 즉, 형제자매, 또래, 부모, 자신 그리고

* The 1st author. Tel. +82-2-940-4490. E-mail. miniduck22@hanmail.net

** Corresponding author. Tel. +82-41-570-1813. E-mail. jspark@ikornu.ac.kr

Submission & Publication Process

Received: Aug. 24, 2015 / Revised: Oct. 1, 2015 / Accepted: Oct. 13, 2015

환경이다. 분노의 원인으로는 심리적, 신체적, 사회적, 물리적 그리고 언어적인 다섯 가지 차원을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분노표현방식으로는 분노표출, 분노억제 그리고 분노조절 세 차원을 검증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유아의 분노대상과 원인 및 분노표출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주제어: 유아의 분노관리, 분노대상, 분노원인, 분노표현방식

1. 서론

인간의 여러 정서 중, 분노(anger)는 기쁨, 슬픔, 공포 등과 함께 인간의 대표정서 중 하나이다 (Ekman, 1992; Kalat & Shiota, 2007). 인간의 여러 정서 중, 분노는 선천적인 것으로 태어나면서부터 그와 관련된 정서표현을 한다(Averill, 1982; Ekman, 1992). 특히, 인간발달과정에서 생후 2개월 정도면 유아에게 분노가 나타난다(Averill, 1982). 이때부터 유아의 분노는 불쾌한 자극이나 신체적 불편감 등으로 인해 분노를 울음이나 찡얼거림 등으로 표현한다. 이러한 분노표현은 유아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도움이 되기도 한다(Bilodeau, 1992; Ekman, 1972; Lazarus, 1991). 유아의 분노는 분노와 관련한 원인이나 표현방식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원인과 표현방식 또한 다양해진다. 3, 4세에는 또래와의 갈등이 주된 분노의 원인이 된다. 5세의 경우,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 분노경험을 하는 등 유아가 아동으로 성장할수록 보다 사회적 맥락에서 분노를 경험한다. 뿐만 아니라 3~4세 경이면 유아들은 기쁨, 슬픔, 분노, 놀람 등의 비교적 단순한 정서의 이해가 가능해지며 정서를 표현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그 이해능력 또한 증가한다(Saarni, *et. al.*, 1988; Stein & Trabasso, 1989). 유아는 정서에 대한 이해와 언어발달에 따라 주로 울음의 방식으로 표현하던 분노를 언어로 표현하기 시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아는 여전히 언어적 표현 외에도 울기, 반항, 투덜, 토라지기, 발버둥, 참기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분노를 표현한다.

유아기의 정서적 특징은 감정표현이 빈번하고 즉각적이다. 그러나 그 정서는 일시적이고 정서상태의 지속시간이 길지 않다(Bretherton, *et. al.*, 1986). 또한 분노유발자의 의도와 그렇지 않음을 구분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아는 그 행동이 의도적이지 않을 때에도 분노를 표현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발달적으로 유아는 그 의도를 아직까지 충분히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이다(Jung, 2014). 유아는 아동기로 발달하며 분노의 원인에 대한 의도성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그에 적절한 분노표현방식을 결정한다. 이런 과정에서 유아는 자신이 속한 문화 속에서의 정서표현 규칙을 배우고 외적으로 표출되는 정서가 실제 내면의 정서와 다를 수 있음도 이해한다. 이렇듯, 연령 및 발달에 따라 분노를 유발하는 원인 및 분노표현방식은 다르지만 유아들은 이른 연령부터 실생활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분노와 그 분노에 대한 지식을 습득한다(Graham, *et. al.*, 1984; Yang & Na, 2004).

유아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아의 기질과 그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 맥락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Bronfenbrenner & Morris, 1998; Coplan, *et. al.*, 2003; Kristal, 2005; Rothbart & Bates, 1998). 유아의 분노 역시 마찬가지다. 유아의 기질과 그를 둘러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유아의 기질은 태어나면서부터 서로 다른 기질적 특성을 갖고 태어나 양육자와의 상호작용한다. 기질은 개인이 어떤 정서를 주로 표현하는지에 대한 경향성과 자기 조절을 위한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Goldsmith & Alansky, 1987; Rothbart & Bates, 1998). 뿐만 아니라 가정환경은 최초의 인간관계를 맺는 중요한 사회적 체계이자 심리적 영향을 미치는 장이다. 부모의 가치관, 반응, 양육행동 등에 의해 가정문화가 형성되고 이러한 가정문화는 유아에게 미시문화로 작용한다(Day & Parlakian, 2004). 유아는 가정에서 부모 및 형제자매와의 모델링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다양한 분노상황을 경험하고 분노를 이해하고 조절하는 방법을 배워간다. 이때 유아는 분노를 경험하고 조절하는데 있어서 가정문화에 따라 서로 다른 성역할에 대한 사회화 환경을 경험하고 형제관계 속에서 분노를 경험하기도 한다(Abramovitch, 1982; Dnham, 2001; Kitzman, *et al.*, 2002; Lee & Cho, 2002). 가정 내에서 부모 및 형제자매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분노경험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분노감정의 인식 및 대처하는 방법이 다르게 학습하게 된다.

생의 초기부터 경험한 분노는 특히, 분노관리차원에서 개인이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분노와 관련하여 합리적이거나 비합리적인 신념을 형성한다. 이러한 신념은 이후 자신의 분노 원인을 평가하고, 인지적으로는 분노에 대한 정서를 적절하게 다루는 방법을 학습하고 이해한다. 이는 유아기 사회 및 정서 발달에서 중요하다. 왜냐하면 유아기의 정서문제나 행동문제가 발달과정에서 ADHD와 품행장애를 거쳐 정신병리적 문제로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Loeber & Farrington, 1994). 따라서 분노를 다루는 법을 배우는 것은 정서발달에 있어서 유아의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유아는 자신의 욕구와 감정 등을 적절히 표현하기가 어렵다. 그러다보니 성인과 달리 언어표현으로 해결하기보다는 비언어적이고 즉각적으로 표출하는 미숙한 방식으로 분노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우울과 같은 내재화 문제 및 공격성과 같은 외현화 문제를 낳을 수 있다(Zemanm, *et al.*, 2002). 그리고 또래뿐만 아니라 부모·교사와의 상호작용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부정적 정서표현에 노출된 아동은 이후 사회적 부적응을 종종 경험하였다(Click, 1996, Reid, *et al.*, 2002). 최근에는 또래폭력 및 공격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문제들이 점점 더 저연령화, 집단화, 난폭화가 되는 추세이기 때문에(Lahey, *et al.*, 2003; Jung, 2011), 유아기에 시작되거나 형성된 공격적 성향은 청소년기뿐만 아니라 성인기까지 유지될 수 있으므로 유아기부터 분노를 적절히 다뤄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유아가 분노를 포함하여 자신 및 타인의 다양한 정서 원인과 조절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적절한 정서 표현과 조절을 할 수 있도록 위기관리 차원에서 조기에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다(Bidwood, *et al.*, 2010).

분노는 유아에게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사회 전역에서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분노관리 및 조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특히, 우리사회의 단편적인 예로, 보복운전, 층간소음으로의 다툼, 불화로 인한 살인 등 심각한 문제가 분노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분노 연구와 관련하여 성인 대상으로 한 연구 그리고 청소년기에 있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분노조절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Kim & Kim, 2008; Jeon, *et al.*, 2012). 분노

조절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들은 증가하는 반면 분노 그 자체의 특성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개인이 경험하는 분노의 유발원인이나 분노표현방식에 발달적 특성 및 성별, 개인이 처한 문화적 특성 등에 따라 현저한 차이가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분노에 관한 기초 연구가 부족하다(Chae, 2004). 분노에 대한 기초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도구의 개발이나 효과적인 개입 프로그램의 적용 등과 같은 응용적 측면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다양한 정서를 경험하고 인식하며 조절하고 표현하는 능력이 발달하는 유아기 때부터 분노를 적절히 조절하고 적응적 기능의 측면을 표현하도록 위기관리 차원에서 조기 개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유아의 발달적 특성 및 성별, 그리고 이들이 처한 문화적 특성 등에 따라 경험하는 분노의 유발원인과 분노표현방식 등과 관련하여 분노의 특성에 대한 기초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유아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분노대상과 분노유발원인 및 분노표현방식에 대한 내용을 연구하겠다. 이를 위해서 유아와 그들의 모(母)를 대상으로 유아가 일상생활 속에서 분노를 경험하게 되는 대상과 분노유발원인 및 분노표현방식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하여 유아들의 분노 특성에 대해 분석하겠다.

이에 유아의 분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유아들의 분노대상은 무엇인지 알아볼 것이다.
2. 유아들이 경험하는 분노 유발원인은 무엇인지 알아볼 것이다.
3. 유아들의 분노표현방식은 어떠한지 알아볼 것이다.

II. 연구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4, 5세 유아들의 분노대상과 분노유발원인 및 분노표현방식을 알아보는 것이다. 유아들의 분노를 다루기 위해서는 유아만의 독특한 분노유발원인과 분노표현방식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알아보는 것이 우선적이다. 유아의 성별이나 연령, 형제유무 등 유아가 처해 있는 상이한 환경에 따라 유아의 분노대상 및 분노유발원인 및 분노표현방식이 서로 다를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의 변수에 따른 유아의 분노 특성을 알아보려 한다.

본 연구에서는 ‘분노대상’은 분노를 유발하거나 분노를 표현하는 대상으로, ‘분노유발원인’은 분노를 발생시키는 상황이나 이유로, ‘분노표현방식’은 분노를 경험했을 때 직·간접적 표현 및 억제, 조절 및 통제 등 다양하게 분노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정의하였다.

1. 연구 대상

본 연구를 위해서 서울에 위치한 구립 어린이집 1개원과 사립 유치원 1개원, 경기도에 위치한 구립

어린이집 각 1개원씩 총 3개원을 임의로 선정하였다. 연구 대상은 4, 5세 유아와 모가 함께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 결과 서울의 W구립 어린이집과 C사립 유치원, 그리고 경기도의 Y구립 어린이집에서 각각 유아 30명, 12명, 22명과 그들의 모가 응답하였다.

연구 대상 유아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별로 4세는 34명(53.1%), 5세는 30명(39.1%)이었다. 성별로는 남아 35명(54.7%)과 여아 29명(45.3%)이었다. 연령과 성별 비율로 살펴보면, 4세 남아 19명(29.7%), 4세 여아 15명(23.4%), 5세 남아 16명(25%), 5세 여아 14명(21%)으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다. 전체 유아 중 형제가 없는 외동아는 10명(15.6%)이었고, 형제가 있는 아동은 54명(84.4%)이었다.

연구에 참여한 유아들의 모 연령대는 24-29세가 1명(1.6%), 30-34세가 19명(29.7%), 35-39세가 35명(54.7%), 40세 이상이 9명(14.1%)이었다. 학력에 따라 살펴보면, 고졸 이하 17명(26.6%), 전문대학졸업 16명(25.0%), 4년제 대학졸업 25명(39.1%), 대학원 이상이 6명(9.4%)이었다. 이들의 취업형태는 전업주부가 41명(64.1%), 시간제 취업이 15명(23.4%), 전일제 취업이 8명(12.5%)이었다. 월평균 가계소득은 2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없었으며, 200-299만원이 20명(31.3%), 300-399만원이 17명(26.3%), 400-499만원이 12명(18.8%), 500만원 이상이 15명(23.4%)이었다.

2. 연구도구

연구진이 개발한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여 평소 유아들이 분노를 느끼거나 표현하는 대상과 분노유발원인과 표현방식을 질문하였다¹⁾. 유아의 경우, 연구자가 1 : 1 면접을 통해 질문하고 유아의 응답내용을 기록하였다. 모의 경우, 유아와 동일한 내용을 묻는 개방형 질문지에 직접 응답내용을 기술하도록 하였다. 모에게는 보다 다양한 응답을 위해서 질문에 대한 응답을 최소한 5개 이상씩 기록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유아의 경우, 더 이상 생각이 안 난다고 할 때까지 응답을 자연스럽게 유도하였다.

3. 연구절차

2013년 6월 한 달간 예비연구를 실시하였다. 예비연구의 목적은 유아들이 질문에서 나오는 ‘화가 난다’는 단어의 의미를 알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개별면접과 본 질문지가 유아의 분노 특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데 있어서 적절한 방법인지를 알아보기 위함이었다. 또한 유아의 분노 특성을 알기 위한 조사에서 유아와 모를 모두 연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한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예비연구에서는 4세 유아 2명과 5세 유아 1명, 그리고 그들의 모가 참여하였다. 면접에 앞서 면접의 목적과 특성을 설명하였고 모로부터 모와 유아, 둘 모두 연구에 참여하겠다는 동의를 받았다.

예비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2013년 7월~8월에 걸쳐서 두 달간 서울과 경

1) 유아용 질문의 예 : ○○는 가끔 짜증이나 화가 날 때가 있나요? 어떤 때 그렇게 짜증이나 화가 나나요?

기 지역에서 실시하였다. 총 64쌍의 유아와 모를 대상으로 유아의 분노대상과 분노유발원인 및 분노표현방식에 대해 질문하였다. 먼저 기관을 통해 학부모용 질문지를 가정으로 발송하였고 질문지와 함께 발송된 안내문을 통해 본 연구의 취지와 특성을 설명하였다. 모에게는 모와 유아, 둘 모두 연구에 참여하겠다는 동의서를 작성한 후 응답한 학부모용 질문지를 다시 기관으로 회송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 질문지에 응답한 모의 유아를 대상으로 연구자가 1 : 1 면접을 실시하였다. 유아와 모로부터 유아의 분노대상, 분노유발원인과 분노표현방식에 대해 복수응답하게 한 결과, 분노대상에 대한 응답 428개(모응답 : 254개, 유아응답 : 234개), 분노유발원인에 대한 응답 492개(모응답 : 256개, 유아응답 : 236개), 분노표현방식에 대한 응답 481개(모응답 : 255개, 유아응답 : 226개)를 수집하였다.

4.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은 본 연구진에 의해 이루어졌다. 우선적으로 아동 면접내용과 모가 질문지를 통해 응답한 내용을 토대로 먼저 유아의 분노대상과 분노유발원인, 분노표현방식에 대해 중복되는 내용을 동일한 반응들로 항목을 구성하였다. 두 번째로 유사한 항목들로 범주를 구성하였다. 최종적으로 항목과 범주를 대표하는 이름을 명명하였다. 각각의 응답들은 항목과 범주는 그에 맞게 상징하는 숫자로 재입력하였다(Koo & Kim, 2006; Park, *et. al.*, 2012; Park & Jung, 2010). 이렇게 입력된 숫자를 기초로 유아와 모의 응답을 빈도분석하였다. 그리고 집단을 나누어 세부적인 빈도분석 또한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분노대상, 분노유발원인, 분노표현방식 각각에 대해 64명의 유아와 그들의 모가 응답한 내용을 EXCEL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모두 기록한 후 중복되는 내용을 최소화하여 정리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같은 내용끼리 정리하여 범주화한 결과 ‘분노대상’은 부모, 형제자매, 또래, 자기 자신, 환경의 다섯 가지 범주로 나누어졌다. ‘분노유발원인’은 크게 심리적 원인, 신체적 원인, 사회적 원인, 물리적 원인, 언어적 원인의 다섯 가지 범주로 나누어졌다. 마지막으로 ‘분노표현방식’은 외적 표출, 내적 억제, 분노조절 시도의 세 가지 범주로 크게 나눌 수 있었다. 각각의 범주 및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분노대상

유아가 분노를 느끼거나 표현하는 대상은 부모, 형제자매, 또래, 자기 자신 및 환경의 5가지로 범주화하였다. 유아가 화를 내는 대상이 부모인 경우에는 ‘부모’로,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형제자매’로, 또래인 경우에는 ‘또래’로 범주를 명명하였다. 또 주로 자신의 능력에 대한 불만이나 신체적·생리적 불편감

등으로 인해 분노를 느끼거나 표현할 경우 분노대상 범주를 ‘자기 자신’으로 명명하였고, 기타 주변 환경(예: 소음, 비좁은 공간 등)으로 인해 짜증이나 분노를 느끼거나 표현한 경우를 ‘환경’이라고 명명하였다.

유아의 분노대상을 빈도와 백분율로 알아본 결과는 <Table 1>에 제시하였다. 유아가 분노를 느끼거나 표현하는 대상으로는 부모가 45.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그 다음은 형제자매(26.2%), 또래(13.7%)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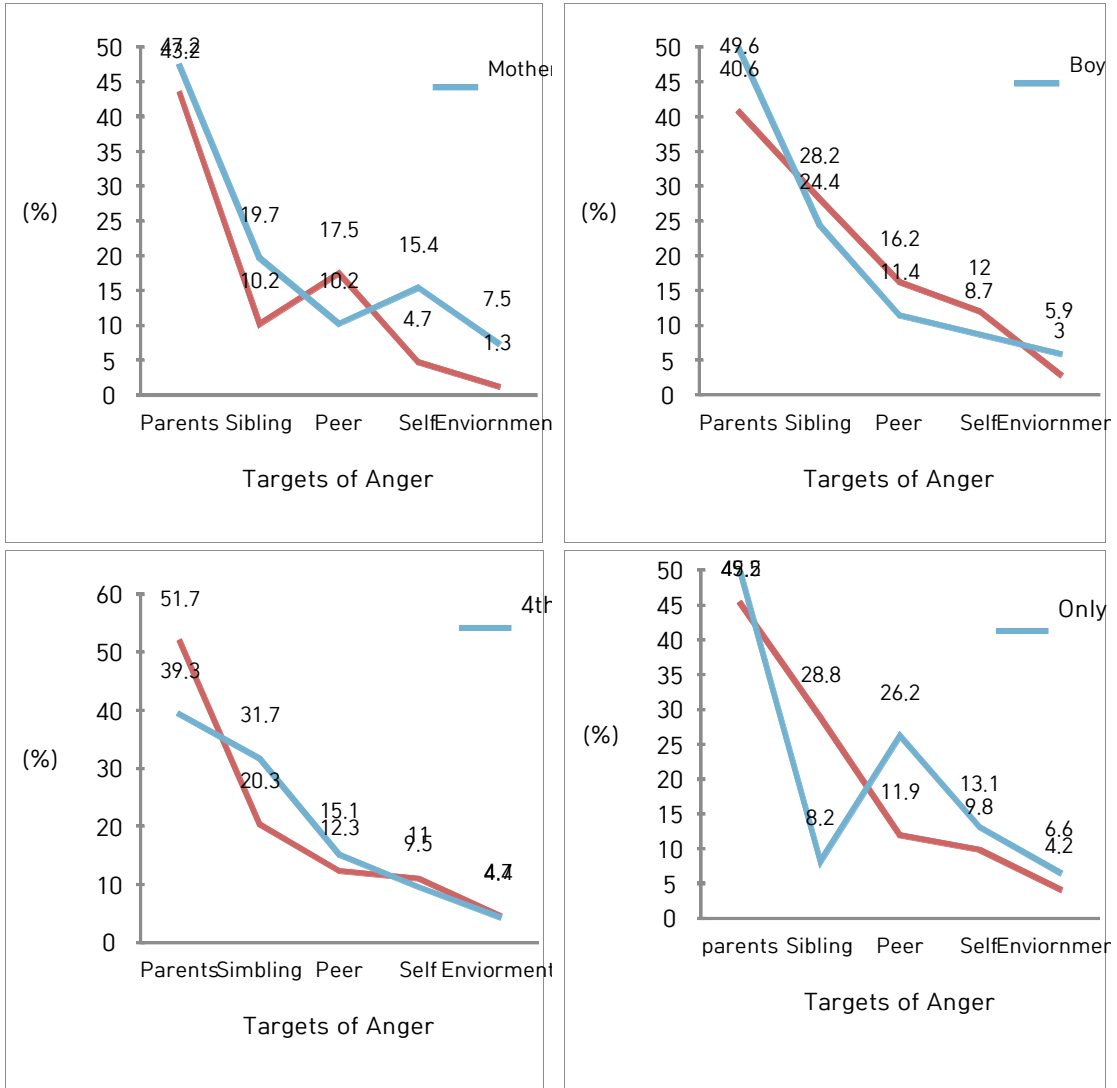
<Table 1> Targets of young children’s anger

						N(%)
Parent	Sibling	Peer	Self	Environment	Total	
221(45.3)	128(26.2)	67(13.7)	50(10.2)	22(4.5)	488(100.0)	

세부적으로 응답자, 성별, 연령, 형제유무에 따라 분노대상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결과는 <Table 2>와 <Figure 1>에 제시하였다. 응답자에 따라 살펴보면, 모든 유아들의 분노대상에 대해 부모-형제자매-자기 자신-또래-환경의 순으로 응답하였으나, 유아들은 자신의 분노대상에 대해 부모-형제자매-또래-자기 자신-환경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아와 여아 모두 부모-형제자매-또래-자기 자신-환경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았다. 남아의 경우 상대적으로 부모를 분노대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여아보다 높았다. 환경을 분노대상이라고 응답한 비율 역시 여아보다 높았다. 또 연령별로 살펴보면 4세와 5세 유아들은 모두 부모-형제자매-또래-자기 자신-환경의 순으로 응답하였으나 5세의 경우, 4세에 비해 부모가 분노대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형제유무에 따라서는 외동아의 경우, 친형제자매가 없는 대신 상대적으로 또래가 분노대상이었다. 형제아의 경우, 또래보다는 형제자매가 분노대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Table 2> Target of young children’s anger: Participant, sex, age, sibling>

	Participant		Sex		Age		Sibling	
	Mother	Young children	Men	Women	4th	5th	Only children	Sibling children
Parent	120(47.2)	101(43.2)	126(49.6)	95(40.6)	99(39.3)	122(51.7)	28(49.5)	193(45.2)
Sibling	50(19.7)	78(33.3)	62(24.4)	66(28.2)	80(31.7)	48(20.3)	5(8.2)	123(28.8)
Peer	26(10.2)	41(17.5)	29(11.4)	38(16.2)	38(15.1)	29(12.3)	16(26.2)	51(11.9)
Self	39(15.4)	11(4.7)	22(8.7)	28(12.0)	24(9.5)	26(11.0)	8(13.1)	42(9.8)
Environment	19(7.5)	3(1.3)	15(5.9)	7(3.0)	11(4.4)	11(4.7)	4(6.6)	18(4.2)
Total	254(100.0)	234(100.0)	254(100.0)	234(100.0)	252(100.0)	236(100.0)	61(100.0)	427(100.0)



<Figure 1> Analysis of targets of anger

2. 분노유발원인

유아의 분노유발원인은 크게 심리적 원인, 신체적 요인, 사회적 원인, 물리적 원인, 언어적 원인의 다섯 가지 범주로 나누었다. <Table 3>과 같이 분노유발원인의 범주를 빈도가 높은 순으로 살펴보면 심리적 요인(49.1%) 사례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신체적 요인(13.9%), 사회적 요인(13.7%), 물리적 요인(11.6%), 언어적 요인(4.4%)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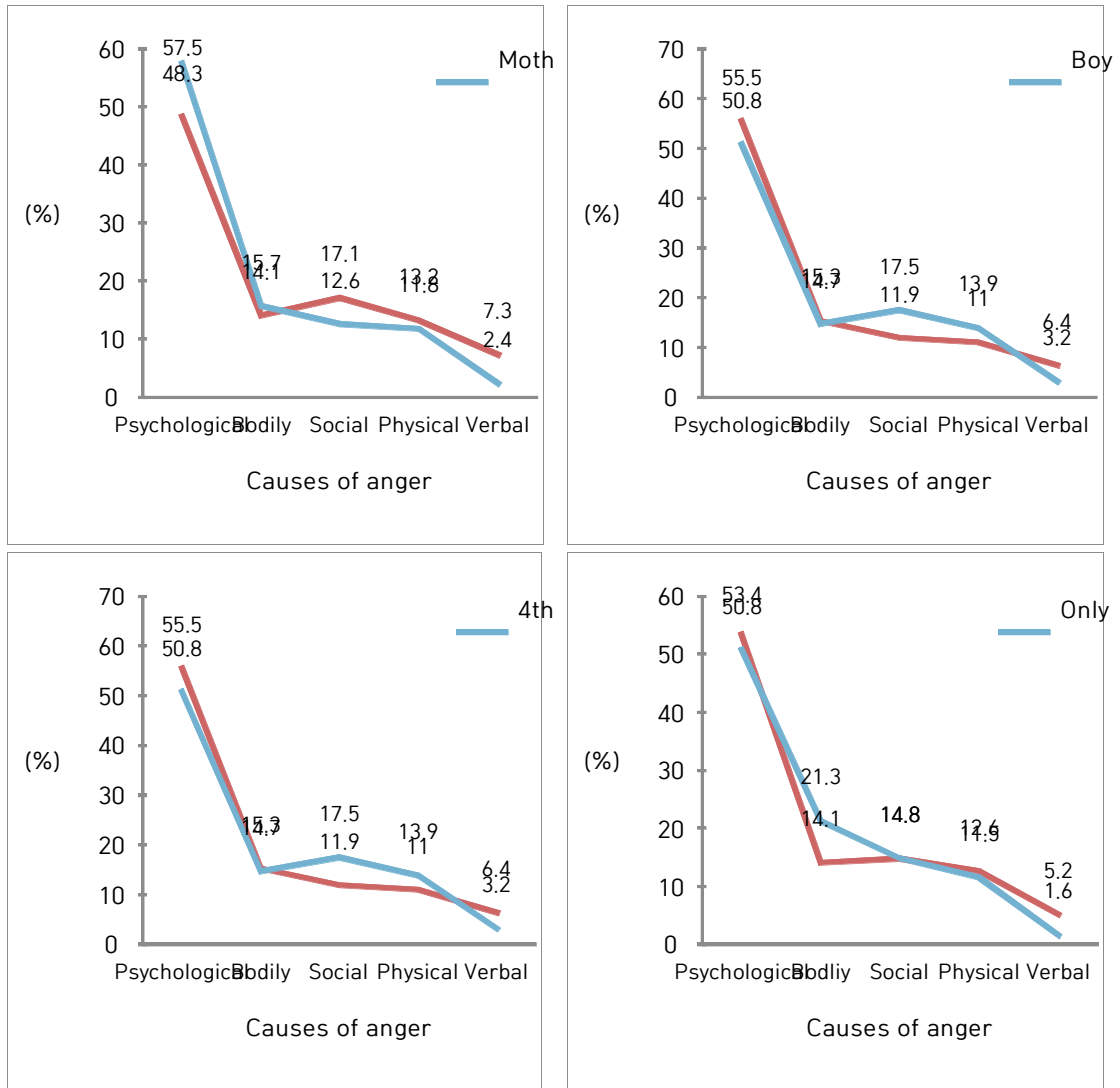
<Table 3> Causes of young children's anger

N(%)					
Psychological	Bodily	Social	Physical	Verbal	Total
259(49.1)	73(13.9)	72(13.7)	61(11.6)	23(4.4)	488(100.0)

세부적으로 응답자, 성별, 연령, 형제유무에 따라 살펴본 결과는 <Table 4>와 <Figure 2>에 제시하였다. 응답자별로 살펴보았을 때, 모와 유아, 둘 모두 유아의 분노유발원인에 대해 심리적 원인-신체적 원인-사회적 원인-물리적 원인-언어적 원인 순으로 응답하였다. 그러나 모는 유아들의 분노유발원인에 대해 심리적, 신체적 원인으로 인해 화를 내는 경우가 많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유아응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유아들은 사회적 원인을 분노유발원인으로 인지하는 비율이 부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아와 여아 모두 유아의 분노유발원인에 대해 심리적 원인-신체적 원인-사회적 원인-물리적 원인-언어적 원인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연령별로는 4세의 경우 심리적 원인-사회적 원인-신체적 원인-물리적 원인-언어적 원인 순으로 응답하였으나, 5세의 경우 심리적 원인-신체적 원인-사회적 원인-물리적 원인-언어적 원인의 순이었다. 마지막으로 형제유무에 따라서는 외동아의 경우 심리적 원인-신체적 원인-사회적 원인-물리적 원인-언어적 원인의 순으로 응답하였고, 형제아의 경우는 심리적 원인-사회적 원인-신체적 원인-물리적 원인-언어적 원인 순으로 응답하였다.

<Table 4> Causes of young children's anger: Participant, sex, age, sibling>

	N(%)							
	Participant		Sex		Age		Sibling	
	Mother	Young children	Men	Women	4th	5th	Only children	Sibling children
Psychological	146(57.5)	113(48.3)	128(50.8)	131(55.5)	238(50.8)	131(55.5)	31(50.8)	228(53.4)
bodily	40(15.7)	33(14.1)	37(14.7)	36(15.3)	37(14.7)	36(15.3)	13(21.3)	60(14.1)
social	32(12.6)	40(17.1)	44(17.5)	28(11.9)	44(17.5)	28(11.9)	9(14.8)	63(14.8)
Physical	30(11.8)	31(13.2)	35(13.9)	26(11.0)	35(13.9)	26(11.0)	7(11.5)	54(12.6)
Verbal	6(2.4)	17(7.2)	8(3.2)	15(6.4)	8(3.2)	15(6.4)	1(1.6)	22(5.2)
Total	254(100.0)	234(100.0)	252(100.0)	236(100.0)	252(100.0)	236(100.0)	61(100.0)	427(100.0)



<Figure 2> Analysis of causes of anger

심리적 원인에는 욕구가 좌절되었을 때, 공부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자신의 능력부족으로 인해 좌절감을 경험할 때, 타인에 의해 하던 일을 중단해야 할 때, 행동을 저지당할 때,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할 때, 자신이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인내심이 요구되는 상황, 타인으로부터 방해를 받거나, 차별이나 무시, 억울한 경우나 부당한 느낌을 갖는 경우 등의 분노유발원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체적 원인은 수면이나 식사, 씻기 등과 관련하여 신체적 불편감의 경우, 타인으로부터의 신체적 공격, 체벌 등의 분노유발원인들이 포함된다. 사회적 원인에는 상대방의 과행동이나 싸움, 따돌림, 약속 위반, 의견충돌, 규칙위반, 양보를 강요당하는 상황 등이 포함되었다. 물리적 원인은 주로 장난감이나 개인의 소유물과 관련하여 뺏고 뺏기는 상황, 장난감이나 소유물이 망가지는 상황 등이며, 마지막으로

언어적 원인에는 어른들의 꾸중이나 반복되는 잔소리, 친구나 형제의 놀림 등의 분노유발원인들로 구성되었다. 각 원인별 유아 및 부모의 응답내용 및 성별, 연령, 형제자매 유무로 세부적인 분석을 <Table 5>에 제시하였다.

<Table 5> Subtypes of causes of young children's anger

	Total	Participant		Sex		Age		Sibling	
		Mother	Young children	Men	Women	4th	5th	Only children	Sibling children
Psychological									
Desire frustration	88(18.0)	56(22.0)	32(13.7)	57(22.4)	31(13.2)	41(16.3)	47(19.9)	13(21.3)	75(17.6)
Discrimination	47(9.6)	23(9.1)	24(10.3)	17(6.7)	30(12.8)	25(9.9)	22(9.3)	1(1.6)	46(10.8)
Academic stress	27(5.5)	16(6.3)	11(4.7)	19(7.5)	8(3.4)	10(4.0)	17(7.2)	3(4.9)	24(5.6)
Unfairness	26(5.3)	11(4.3)	15(6.4)	13(5.1)	13(5.6)	16(6.3)	10(4.2)	2(3.3)	24(5.6)
Discouraged	25(5.1)	14(5.5)	11(4.7)	16(6.3)	9(3.8)	12(4.8)	13(5.5)	5(8.2)	20(4.7)
Disregard	21(4.3)	17(6.7)	4(1.7)	8(3.1)	13(5.6)	11(4.4)	10(4.2)	5(8.2)	16(3.7)
Disturb	11(2.3)	2(0.8)	9(3.8)	5(2.0)	6(2.6)	7(2.8)	4(1.7)	0(0.0)	11(2.6)
Lacking in patience	5(1.0)	4(1.6)	1(0.4)	5(2.0)	0(0.0)	1(0.4)	4(1.7)	1(1.6)	4(0.9)
etc	9(1.8)	3(1.2)	6(2.6)	4(1.6)	5(2.1)	5(2.0)	4(1.7)	1(1.6)	8(1.9)
Bodily									
Physical aggression	22(4.5)	2(0.4)	20(4.1)	12(4.7)	10(4.3)	13(5.2)	9(3.8)	3(4.9)	19(4.4)
Sleeping	19(3.9)	17(6.7)	2(0.9)	8(3.1)	11(4.7)	11(4.4)	8(3.4)	3(4.9)	16(3.7)
Eating	16(3.3)	12(4.7)	4(1.7)	9(3.5)	7(3.0)	6(2.4)	10(4.2)	4(6.6)	12(2.8)
Show	7(1.4)	5(2.0)	2(0.9)	1(0.4)	6(2.6)	3(1.2)	4(1.7)	1(1.6)	6(1.4)
Physical discomforts	5(1.0)	4(1.6)	1(0.4)	2(0.8)	3(1.3)	2(0.8)	3(1.3)	0(0.0)	5(1.2)
Physical punishment	4(0.8)	0(0.0)	4(0.8)	3(1.2)	1(0.4)	2(0.8)	2(0.8)	2(3.3)	2(0.5)
Social									
Hyperactivity	17(3.5)	4(1.6)	13(5.6)	10(3.9)	7(3.0)	8(3.2)	9(3.8)	2(3.3)	15(3.5)
Fight	16(3.3)	8(3.1)	8(3.4)	4(1.6)	12(5.1)	12(4.8)	4(1.7)	2(3.3)	14(3.3)
Ostracism	15(3.1)	4(1.6)	11(4.7)	6(2.2)	9(3.8)	11(4.4)	10(4.2)	1(1.6)	14(3.3)
Violation of regulations	15(3.1)	7(2.8)	8(3.4)	10(3.9)	5(2.1)	8(3.2)	7(3.0)	3(4.9)	12(2.8)
Conflicts of opinion	5(1.0)	5(2.0)	0(0.0)	2(0.8)	8(3.4)	2(0.8)	3(1.3)	0(0.0)	5(1.2)
Demand concession	4(0.8)	4(1.6)	0(0.0)	3(1.2)	1(0.4)	3(1.2)	1(0.4)	1(1.6)	3(0.7)
Physical									
Toy	61(12.5)	30(11.8)	31(13.2)	30(11.8)	31(13.2)	35(13.9)	26(11.0)	7(11.5)	54(12.6)
Verbal									
Scolding	13(2.7)	4(1.6)	9(3.8)	4(1.6)	9(3.8)	5(2.0)	8(3.4)	1(1.6)	12(2.8)
Taunt	10(2.0)	2(0.8)	8(3.4)	6(2.4)	4(1.7)	3(1.2)	7(3.0)	0(0.0)	10(2.3)
Total	488(100.0)	254(100.0)	234(100.0)	254(100.0)	234(100.0)	252(100.0)	236(100.0)	61(100.0)	427(100.0)

3. 분노표현방식

유아들의 분노표현방식은 크게 외적 표출, 내적 억제, 분노조절 시도의 세 가지로 범주화하였다. <Table 6>과 같이 먼저 분노표현방식을 범주별로 빈도가 높은 순으로 살펴보면, 외적표출(66.1%)이 가장 많았다. 다음이 분노조절시도(20.0%), 마지막으로 내적 억제(13.9%)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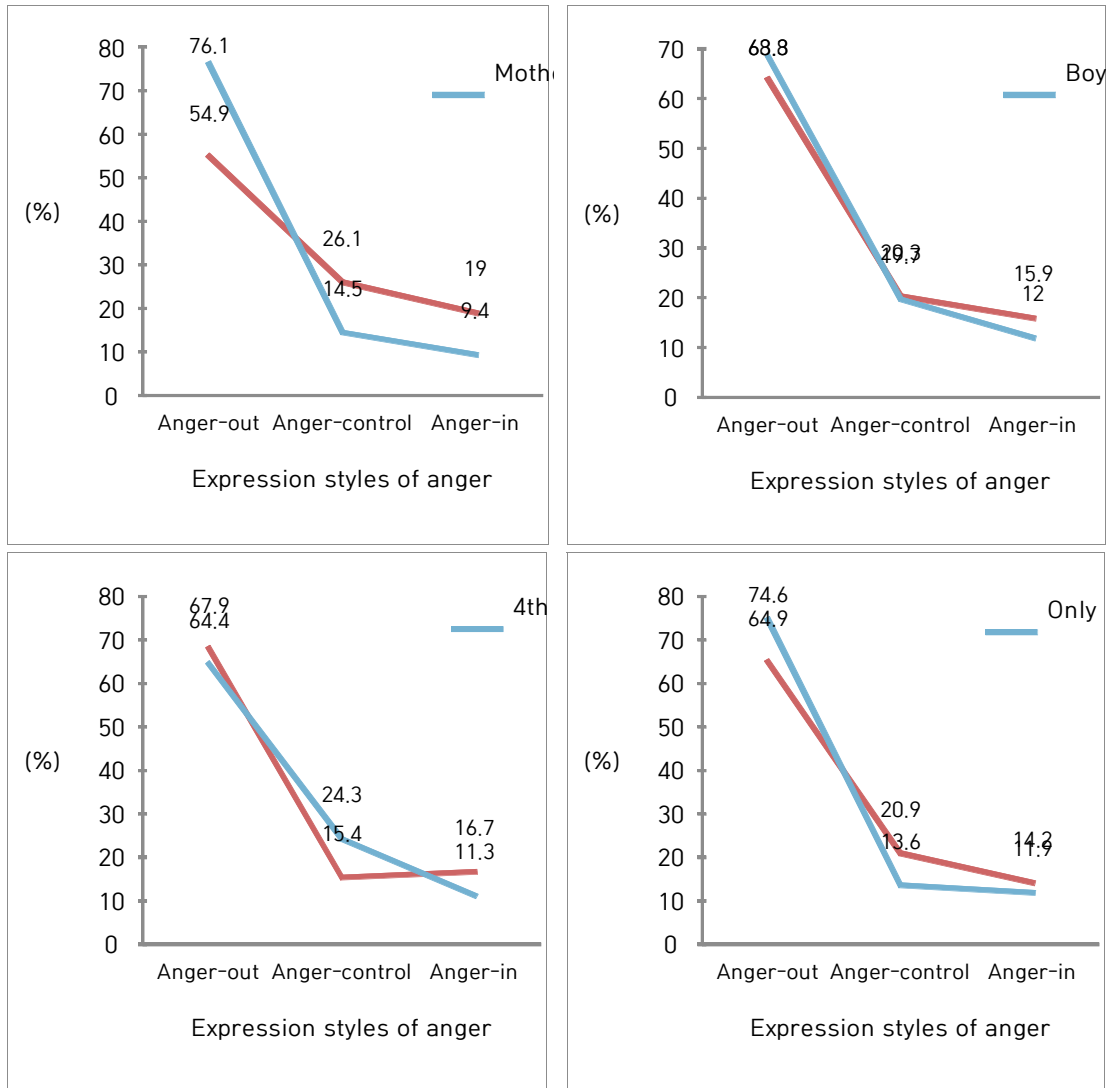
<Table 6> Expression styles of young children's anger

				N(%)
Anger-out	Anger-control	Anger-in	Total	
318(66.1)	96(20.0)	67(13.9)	481(100.0)	

이를 다시 응답자, 성별, 연령, 형제유무에 따라 살펴본 결과는 <Table 7>과 <Figure 3>에 제시하였다. 먼저 응답자별로 살펴보면 모와 유아, 둘 모두 유아들의 분노 표현방식에 대해 외적 표출-분노조절 시도-내적 억제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그러나 모는 유아들에 비해 유아들이 분노를 외적으로 표출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현저히 높았으며, 반면 유아들은 모에 비해 분노 상황에서 분노조절을 시도하거나 내적으로 억제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아와 여아 모두 유아의 분노유발원인에 대해 외적 표출-분노조절시도-내적 억제 순으로 응답하였다. 연령별로는 4세의 경우 외적 표출-분노조절시도-내적 억제 순이었고, 5세의 경우는 외적 표출-내적 억제-분노조절 시도였다. 비율로 살펴보았을 때 4세와 5세 모두 외적 표출 방식으로 분노를 표현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상대적으로 4세가 5세에 비해 분노조절을 시도하는 비율이 높고, 5세는 4세에 비해 내적 억제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형제유무에서는 외적 표출-분노조절시도-내적 억제 순으로 응답하였다.

<Table 7> Expression styles of young children's anger: Participant, sex, age, sibling

									N(%)
	Participant		Sex		Age		Sibling		
	Mother	Young children	Men	Women	4 th	5 th	Only children	Sibling children	
Anger-out	194(76.1)	124(54.9)	170(68.3)	148(63.8)	159(64.4)	159(67.9)	44(74.6)	274(64.9)	
Anger-control	37(14.5)	59(26.1)	49(19.7)	47(20.3)	60(24.3)	36(15.4)	8(13.6)	88(20.9)	
Anger-in	24(9.4)	43(19.0)	30(12.0)	37(15.9)	28(11.3)	39(16.7)	7(11.9)	60(14.2)	
Total	255(100.0)	226(100.0)	249(100.0)	232(100.0)	247(100.0)	234(100.0)	59(100.0)	422(100.0)	



<Figure 3> Analysis of Expression styles of anger

외적 표현에는 울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소리를 지르거나 따지기, 자신의 욕구를 관철하기 위해 조르기 등의 언어적 대응으로 표출된 경우, 상대를 때리거나 발로 차는 등의 신체적으로 대응한 경우, 탄침을 부리거나 삐딱하거나 불만스러운 태도 등으로 비언어적으로 표현하는 경우, 만만한 대상이나 물건 등 다른 대상에게 화풀이하는 경우, 위축되어 가만히 있는 경우, 분노를 유발한 대상과 같이 안 놀거나 똑같은 방식으로 맞대응하는 등 사회적 대응을 하는 경우, 징징거리며 떼를 쓰는 경우로 구성되어 있다. 분노조절시도에는 말로 해결을 시도한 경우, 엄마나 어른들에게 이르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다른 곳으로 관심을 전환하고 이완하고자 하는 경우로 구성되어 있다. 내적 억제에는 참는 경우, 다른 방으로 들어가거나 혼자 있는 등 분노 상황으로부터 거리

를 두는 경우로 구성되어 있다. 각 원인별 유아 및 부모의 응답내용 및 성별, 연령, 형제자매 유무로 세부적인 분석을 <Table 8>에 제시하였다.

<Table 8> Subtypes of Expression styles of young children's anger

	N(%)								
	Total	Participant		Sex		Age		Sibling	
		Mother	Young children	Men	Women	4 th	5 th	Only children	Sibling children
Anger-out									
Crying	95(19.8)	65(25.5)	30(13.3)	53(21.3)	42(18.1)	53(21.5)	42(17.9)	14(23.7)	81(19.2)
Verbal	60(12.5)	38(14.9)	22(9.7)	20(8.0)	40(17.2)	34(13.8)	26(11.1)	8(13.6)	52(12.3)
Bodily	48(10.0)	19(7.5)	29(12.8)	31(12.4)	17(7.3)	24(9.7)	24(10.3)	4(6.8)	44(10.4)
Non-verbal	31(6.4)	22(8.6)	9(4.0)	18(7.2)	13(5.6)	13(5.3)	18(7.7)	7(11.9)	24(5.7)
Pester	26(5.4)	15(5.9)	11(4.9)	17(6.8)	9(3.9)	12(4.9)	14(6.0)	2(3.4)	24(5.7)
Vent one's anger	23(4.8)	13(5.1)	10(4.4)	17(6.8)	6(2.6)	8(3.2)	15(6.4)	4(6.8)	14(3.3)
Reject	18(3.7)	16(6.3)	2(0.9)	7(2.8)	11(4.7)	9(3.6)	9(3.8)	4(6.8)	14(3.3)
Social	10(2.1)	1(0.4)	1(0.4)	1(0.4)	9(3.9)	4(1.6)	6(2.6)	1(1.7)	9(2.1)
Ask for the impossible	9(1.9)	7(2.7)	2(0.9)	7(2.8)	2(0.9)	4(1.6)	5(2.1)	0(0.0)	9(2.1)
Anger-control									
Solve in words	51(10.6)	16(6.3)	35(15.5)	23(9.2)	28(12.1)	32(13.0)	19(8.1)	6(10.2)	45(10.7)
Asking help	37(7.7)	16(6.3)	21(9.3)	17(7.6)	18(7.8)	22(8.9)	15(6.4)	2(3.4)	35(8.3)
Switch of concern	6(1.2)	3(1.2)	3(1.3)	6(2.4)	0(0.0)	4(1.6)	2(0.9)	0(0.0)	6(1.4)
Anger-in									
Suppress	39(8.1)	10(3.9)	29(12.8)	18(7.2)	21(9.1)	16(6.5)	23(9.8)	3(5.1)	36(8.5)
Shrinking	15(3.1)	4(1.6)	11(4.9)	6(2.4)	9(3.9)	6(2.4)	9(3.8)	2(3.4)	13(3.1)
Avoid	13(2.7)	10(3.9)	3(1.3)	6(2.4)	7(3.0)	6(2.4)	7(3.0)	2(3.4)	11(2.6)
Total	481(100.0)	255(100.0)	226(100.0)	249(100.0)	232(100.0)	247(100.0)	234(100.0)	59(100.0)	422(100.0)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유아와 그들의 모를 대상으로 유아의 분노관리를 위한 분노대상 및 분노유발원인 및 분노표현방식에 대한 유형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겠다.

유아가 주로 분노를 느끼고 표현하는 대상은 부모, 형제자매, 또래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유아에게 있어 자신의 분노를 많이 유발하고 분노를 표현하는 대상은 부모였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

들의 사회적 관계는 가정 내에서의 상호작용을 통해 대부분 이루어지고 부모로부터 양육과 관련된 기본생활 측면에서 여러 가지 지시 및 훈육을 받게 되는 가운데 자신의 욕구와 대치되는 부분에서 크고 작은 분노를 경험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즉, 부모자녀관계에서 비롯된 상호관계가 유아의 분노조절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라고 사료되고 부모가 적절하고 건강한 양육행동을 해야 함을 지지한다(Day & Parlakian, 2004; Jung, 2014).

유아의 분노대상에는 자기 자신도 포함되어 있다. 모는 유아가 자기 자신이 가진 능력의 한계나 생리적·신체적 불편감 등으로 짜증을 내는 경우 유아가 짜증이나 화를 낸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런 경우 모는 유아가 분노를 표현하는 대상이 부모라고 응답한 비율도 높았다. 반면 유아는 자신이 졸리거나 잠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잠을 깰 때, 씻을 때, 피곤할 때 등의 상황에서 경험하는 생리적·신체적 불편감으로 인해 짜증을 내면서도 그러한 상황을 분노 상황이라고 인식하지 않았다. 유아는 이 상황을 분노 상황으로 인식하지 않지만, 유아를 양육하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잠투정이나 양육의 맥락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유아들의 짜증이 상대적으로 민감하게 인지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외에도 유아들의 분노대상에는 환경이 포함되어 있다. Berkowitz(1990)는 그의 연구를 통해 찬물에 몸을 담그거나 더운 날씨에 노출되는 것, 역겨운 냄새, 소음 등 불쾌한 자극 자체가 분노와 공격성을 초래하는 주된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의 경우, 놀이공간이 비좁아 친구들과 부딪치는 상황이나 주변의 시끄러운 소리 등 환경적인 요인도 분노 유발의 대상임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유아와 그들의 모는 분노 유발원인에 대해서 서로 다르게 인식하는 부분들이 있었다. 가령, 모는 수면이나 식사 등 생리적 규칙성과 관련된 범주들이 유아의 분노 유발원인이 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양육 상황에서 유아는 자신이 화를 내는 상황이라고 인지하지 않지만, 모는 생리적으로 규칙적이지 않은 유아의 잠투정, 편식, 씻기 등 자녀를 양육하는 상황과 관련하여 투정이나 짜증 등이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상황으로 인식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목욕하기나 옷입기에서와 같이 양육과 관련된 요인도 화를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는 연구결과를 지지한다(Yang & Na, 2004). 즉, 모의 부정적 반응은 같은 상황을 분노로 인식하지 않는 유아에게는 오히려 모의 부정적인 반응으로 인해 분노가 유발되는 악순환을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유아가 성차와 무관하게 분노를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은 장난감이나 소유물과 관련된 물리적 요인이었다. Fabes & Eisenberg(1992)는 유아들이 화를 내는 원인에 대해 ‘욕구불만’, ‘자료다툼’, ‘신체적·언어적 공격’, ‘놀이거부’, ‘행동저지’ 등으로 분류하고, 이 중 화를 내는 원인으로서는 ‘자료다툼’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하였다. Hurlock(1978)도 유아들의 경우 자신의 소유물을 침해하거나 놀이를 방해했을 경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장난감이나 물건이 움직이지 않거나 실수를 했을 경우에 화를 낸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는 본 연구의 결과 ‘장난감과 소유물’로 인한 분노유발원인의 빈도가 가장 많은 것과 일치하였다. 유아의 분노유발원인에 ‘공부로 인한 스트레스’가 포함되었다. 이는 우리나라의 지나친 경쟁문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유아들은 취학 전부터 매우 일찍 또래와의 경쟁에서 뒤지

지 않기 위해 학습지나 다양한 사교육에 참여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학업과 관련하여 공부 스트레스는 어린 유아에게 높고자 하는 욕구의 좌절, 자신의 능력보다 어려운 것을 해야 하는 데서 오는 좌절감, 공부하기 위해 원하는 일을 할 시간이 축소된다는 것에 대한 불만 등을 야기하였고 유아의 분노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분노감이 외적으로 표출되거나 내적으로 억제될 경우 부모와의 상호작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분노유발원인은 분노대상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었다. 분노대상이 부모인 경우, 욕구좌절이나 차별, 하던 일 중단 등이 분노 유발의 주원인이었다. 이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주로 발생하는 상황들이고 특히,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는 더 그렇다. 그리고 형제자매가 분노대상인 경우에는 장난감이나 소유물 다툼이나 신체적 공격이 주요 분노유발원인이었다(Abramovitch, 1982; Dnham, 2001). 이는 형제자매 사이의 장난감 다툼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빈번하게 신체적 공격상황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형제자매가 유아의 분노대상이 됨을 알 수 있었다. 또래가 분노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장난감이나 소유물과 관련하여 분노가 유발되지만 그 외에도 싸움이나 따돌림 등 사회적 요인의 비중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이 밖에도 자기 자신과 관련해서는 자신의 능력 부족으로 인한 좌절감이나 수면과 관련하여 유아들은 빈번하게 분노를 경험하였다.

셋째, 유아의 분노 표현방식에 대해 유아와 그들 모의 지각에 차이가 있음도 중요한 시사점을 가진다. 모의 경우, 유아가 울음 등의 방식으로 감정을 표출하거나 화가 나면 엄마를 때리고 조르고 때치고 소리 지르는 등의 외적 표출을 많이 한다고 응답한 반면, 유아는 자신들이 말로 해결하려는 등 분노조절을 시도하거나 분노표현을 억제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응답 패턴은 앞서 논의한 분노 대상이나 분노 유발원인에서도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모-자녀 관계에서 같은 상황에 대해 모가 지각하는 양상과 자녀가 지각하는 양상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서로 어떻게 지각하느냐는 상호작용의 맥락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분노 상황에서 부모들은 유아가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외적으로 강하게 표출한다고 인지함으로써 양육 과정에서 유아에게 부정적인 피드백을 주고, 이는 양육 스트레스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 자기가 스스로 분노표현을 억제하거나 조절한다고 생각하는 유아는 유아대로 모의 부정적인 피드백에 억울함을 느끼고 이것이 다시 분노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는 악순환이 될 수 있다. 유아의 분노 표현방식에 있어 연령차에 대해 살펴보면, 본 연구 결과 5세에 비해 4세가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시도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들에 의하면 상호작용 맥락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공격적 대응이 효과적이었던 경험들이 축적되면 이후에도 계속 공격적 대응방식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빈도가 많아짐을 알 수 있다(Kim, 2004; Lee, 2010). 따라서 분노를 적절하게 조절하고 해소하는 방법과 분노를 사회에서 통용되는 방식으로 표현하고 조절하는 것을 유아기부터 배우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분노 표현방식에 있어 성별의 차이도 있음을 지지하였다(Deffenbacher & Swaim, 1999). 본 연구에서도 남아는 신체적 대응, 조르기, 다른 대상에 화풀이 등의 표현방식을 많이 사용하는 반면, 여아는 언어적 대응이나 말로 해결 시도, 사회적 대응 등의 표현방식을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유아와 그들의 모, 둘 모두 분노 표현방식에 대해 직접적으로 분노를 표출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하지만 모는 유아에 비해 유아의 분노 상황에서 울음 등의 직접 표출 정도를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으로 인식하였다. 반면 유아의 경우 모의 응답에 비해 자신들이 분노 상황에서 분노조절을 시도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분노와 관련된 상황에서 모와 유아의 인식 측면에서 모는 유아의 울음과 같은 분노의 직접 표출 방식을 상대적으로 민감하게 인식하고 유아의 경우, 자신들이 분노관리 차원에서 분노를 스스로 조절하고자 애쓰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유아와 모의 서로 다른 인식은 모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서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고, 모의 양육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 보완사항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내용 분석을 중심으로 하였기 때문에 분노에 대한 질적 연구 중, 담화적 분석을 실시하지 못하였다. 그러다 보니 그 내용이 축약적이고 빈도와 백분율로 표현한 수치에 의존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빈도와 백분율은 연구참여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인식하고 있는 유아의 분노와 관련하여 분노관리를 위한 예방책을 강구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둘째, 분노의 대상과 그 원인 및 표현방식의 일련의 인과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러한 일련의 인과과정을 충분히 설명하기에는 본 연구는 한계가 있었다.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유아의 분노의 대상이 누구이고 원인이 무엇이며 표현방식이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위함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분노대상과 분노원인 및 분노표현방식에 대한 내용분석으로 그러한 인과과정을 유추해볼 수 있으므로 유아의 분노관리에 여러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추후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한계점을 토대로 유아의 분노 및 분노관리에 대한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 Abramovitch, R. 1982. Pattern of Sibling Interaction among Preschool Age Children. M. Lamb & B. Sutton-Smith(Eds.). *Sibling relationship*. NJ: L. Erlbaum Associates.
- Averill, J. R. 1982. *Anger and Aggression: An Essay on Emotion*. NY: Springer.
- Bidwood, B. A., H. Wilkie, & A. Katchaluba. 2010. Releasing the Steam: An Evaluation of the Supporting Tempers, Emotions, and Anger Management(STEAM) Program for Elementary and Adolescent-age Children. *Social Work with Group*. 33: 160-174.
- Bilodeau, L. 1992. *The Anger Workbook*. Hazelden.
- Bretherton, I., J. Fritz, C. Zahn-Waxler, and D. Ridgeway. 1986. Learning to Talk about Emotions: A Functionalist Perspective. *Child Development*. 57: 529-548.
- Bronfenbrenner, U. and P. Morris. 1998. The Ecology of Developmental Process. W. Damon(Series

- Eds.) & R. M. Lerner(Vol. 1.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Theoretical Models of Human Development*. NY: Wiley.
- Chae, H. 2004. A Study on Anger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in Korea. *Journal of Korean Council for Children & Rights*. 8(4): 671-703.
- Click, N. R. 1996. The Role of Overt Aggression, Relational Aggression, and Prosocial Behavior in the Prediction of Children's Future Socia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7: 2317-2327.
- Coplan, R. J., A. Bowker, and S. M. Cooper. 2003. Parenting Daily Hassles, Child Temperament and Social Adjustment in Preschool.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8: 376-393.
- Day, M. and R. Parlkian. 2004. *How Culture Shapes Social-emotional Development: Implications for Practice in Infant-family Programs*. Washington, DC: Zero to Three Press.
- Denham, S. A. 2001. Dealing with Feelings: Foundations and Consequences of Young Children's Emotional Competence. *Early Education & Development*. 12(1): 5-10.
- Ekman, P. 1972. Universals and Cultural Differences in Facial Expressions of Emotion. J. Cole.(Ed.),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Ekman, P. 1992. An Argument for Basic Emotions. *Cognition and Emotion*. 6: 169-200.
- Goldsmith, H. H. and J. A. Alansky. 1987. Maternal and Infant Emotion Systems. M. Lewis & J. M. Haviland(Eds.), *Handbook of emotion*. NY: Guilford.
- Graham, S., C. Doubleday, and P. A. Guarion. 1984. The Development of Relations between Perceived Controllability and the Emotions of Pity, Anger, and Guilt. *Child Development*. 55: 561-565.
- Jun, E., H. Lee, and J. Lee. 2012. Analysis of Trends in Anger Control Programs among Children. *Journal of Korean Council for Children & Rights*. 16(1): 73-95.
- Jung, O. 2014. *Developmental psychology*. Seoul: Hakjisa.
- Kalat, J. W. and M. N. Shiota. 2007. *Emotion*. Seoul: Cengage..
- Kim, K. 2004. Relationship between Temperament and Emotion Regulation with Negative Emotion.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5(6): 355-370.
- Kim, K. and S. Kim. 2008. The Effects of Young Children's Anger Control Program on Anger and Aggressiveness.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13(1): 301-321.
- Kitzman, K. M., R. Cohen, and R. L. Lockwood. 2002. Are Only Children Missing Out? Comparison of the Peer-related Social Competence of Only Children and Sibling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 19(3): 299-316.
- Koo, J. and U. Kim. 2006. Happiness and Subjective Well-being among Korean Students and

- Adults: Indigenous Psychological Analysis. *Kor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nd Social Issues*. 12(2): 77-100.
- Kristal, J. 2005. *The Temperament Perspective Working with Children Behavioral Styles*. NY: Paul H. Brookes.
- Lahey, B. B., T. E. Moffitt, and A. Caspi. 2003. *Causes of Conduct Disorder and Juvenile Delinquency*. NY: Guilford.
- Lazarus, R. S. 1991. *Emotion and Adap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Lee, H. and Cho, S. 2001. Sibling Relationships and Children's Social Competence.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3(3): 139-148.
- Lee, S. 2010. Study on Children's Emotion according to Understanding of Emotion, Cause of Emotion, Way of Emotion Expression and Age Difference.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30(6): 67-95.
- Loeber, R. and D. P. Farrington. 1994. Problems and Solutions in Longitudinal and Experimental Treatment Studies of Child Psychopathology and Delinquenc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2: 887-900.
- Park, J. and T. Jung. 2010. Perception of Religious Life as Self-referencing Effect: A Comparison of Internal and External Dimensions. *Journal of Religion and Culture*. 15: 199-226.
- Park, Y., U. Kim, K. Han, and S. Park. 2012 Factors Influencing the Perceived Level of Happiness among Adolescents: With Specific Focus on Family, School and Leisure Life.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9(9): 149-188.
- Reid, J. B., G. R. Patterson, and J. J. Snyder. 2002. *Antisocial Behavior in Children and Adolescents: A Developmental Analysis and Model for Intervention*.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Rothbart, M. and J. Bates. 1998. Temperament. W. Damon & N. Eisenberg(Ed.), *Handbook in child psychology, Vol. 3. Social and emotional development*(5th ed.). NY: Wiley.
- Saarni, C., D. L. Mumme, and J. J. Campos. 1998. Emotional Development: Action, Communication, and Understanding. W. Damon(Serise Ed.) & N Eisenberg (Vol.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3* (6th ed.). NY: Wiley.
- Stein, N. L. and T. Trabasso. 1989. Children's Understanding of Changing Emotional State. C Saarni & P. L. Harris(Eds.), *Children's Understanding of Emotion*.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Yang, O. and E. Na. 2004. Young Children's Emotional Regulation in Angry Situations.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11(4): 181-199.

Zeman, J., K. Shipman, and C. Suveg. 2002. Predictions to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Symptoms in Children. *Journal of Clinical Child & Adolescent Psychology*. 31: 393-398.

Korean References translated from the English

- 구재선, 김의철. 2006. 한국인의 행복 경험에 대한 토착문화심리학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2(2): 77-100.
- 김경희. 2004. 아동의 기질과 부정적 정서 및 정서조절전략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25(6): 355-370.
- 김규수, 김선혜. 2008. 유아의 분노조절 프로그램이 분노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열린 유아교육연구*. 13(1): 301-321.
- 박영신, 김의철, 한기혜, 박선영. 2012. 청소년이 지각한 행복의 수준과 요인: 가정, 학교, 여가생활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9(9): 149-188.
- 박준성, 정태연. 2010. 참조효과에 따른 종교생활에 대한 인식: 내재적·외재적 종교생활의 비교. *종교문화연구*. 15: 199-226.
- 양옥승, 나은숙. 2004. 영·유아가 화를 내는 원인과 조절에 관한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1(4): 181-199.
- 이승은. 2010. 유아의 정서에 관한 연구: 정서이해, 정서유발원인, 표현방식, 연령차를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30(6): 67-95.
- 이현정, 조성연. 2001. 형제·자매관계에 따른 아동의 사회적 능력. *아동학회지*. 23(3): 139-148.
- 전은청, 이혜진, 이진숙. 2012. 아동을 대상으로 한 분노조절 프로그램 경향 분석 -2000년~2010년도 국내논문을 중심으로. *아동과 권리*. 16(1): 73-95.
- 정옥분. 2014. 발달심리학 개정판. 서울: 학지사.

신재은: 동덕여자대학교 아동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주)리틀빅키즈에 재직하고 있고 동덕여대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주요 연구분야는 유아 및 아동의 분노와 부모교육이다(miniduck22@hanmail.net).

박준성: 중앙대학교에서 심리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나사렛대학교 심리재활학과에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로는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사회 및 문화심리, 발달심리, 진로탐색 등이 있다(jspark@komu.ac.kr).